

ミニ講演 韓日佛教学術forum 二〇一四年十月四日 慶熙大学

現代における宗教の意義

三原正資

本日は韓国に参り仏教を通して皆様方と交流する機会を得まして、大変光栄に思います。

さて、韓国と日本は二〇〇〇年近い交流の歴史をもっています。そして仏教の歴史にとって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六世紀前半、当時の百濟から仏教が伝えられたことです。聖明王はわが国の欽明天皇に仏像と経典を贈り、飛鳥仏教の成立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このことを、日蓮聖人も『撰時抄』に

百濟国より一切経竝に教主釈尊の木像僧尼等日本国にわたる。(定遺一〇一四頁)

と示されています。

八世紀に造られ、わが国の東大寺に伝えられている金銅製の誕生釈迦仏立像のやさしいお顔は、韓国の端山溪谷ソッサンにのこる磨崖仏の微笑ほほえみにそっくりです。百濟の仏教は、人の心にひそむやさしさを、わが国に伝えてくれたのです。百濟は日本文化のふるさとといえましょう。

また、私たち日蓮聖人の仏教を学ぶものが必ず手にとる本が、天台教学の入門書である『天台四教儀』です。これは高麗僧・諦観があらわしたものです。五〇年前、初めて目にした表題の下に記された「高麗沙門 諦観 録」の文字は鮮烈で、高麗国の名とともに私の心に刻まれています。

さて、日蓮宗は日蓮聖人によって、一二五三年に開かれた仏教教団です。ちなみに、日蓮という名前は法華経に由来します。

日月の光明の能く諸の幽冥を除くが如く、斯の人間に行じて能く衆生の闇を滅す。（太陽や月の光がさまざまなうす暗い闇を除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この人は世に活動して衆生の（心の）闇を滅する）

世間の法に染まざること、蓮華の水に在るが如し。（立派に菩薩の道を学習し世の俗事に染まらないことはちょうど蓮華が（汚泥の）水中にあるかのようであります）

日蓮聖人が仏教を開かれた釈迦牟尼仏の弟子としての自覚と決意をあらわした名前です。

さて、三年半前の二〇一一年三月一日、マグニチュード九・〇という、一〇〇〇年に一度といわれる大地震と大津波が日本を襲いました。そのとき、私は東京にいましたが、その地震はたいへん恐ろしいものでした。東京湾にある石油タンクは火災をおこし、黒煙がただよっていました。テレビを見ると、大津波が東北地方の沿岸にある街をひとのみにしていました。死者・行方不明者は併せて二万人に迫り、今なお、被災者の人々は苦しんでいます。このとき、韓国の方々を始め、世界中の人びとから援助をいただき、励ましのことばをいただいたことに、今もなお感謝しています。

ところで、世界の国々にさきがけて、日本はわが国の歴史上初めて人口減少時代に入っています。私が生まれる前は七〇〇〇万人、現在は一億二〇〇〇〇万人余りです。

ある雑誌（「週刊現代 六月二二日号」）はわが国の将来の姿を、次のようにやや誇張してたいへん刺激的に報じています。

「人口4300万人」

ニッポン 30年後の現実

客が消えて、仕事が消えて、そして

若い女性が消える

（略）

街は荒廃の一途を辿ることになるだろう。やがて人生の最後を迎えたとき、近所には寺もなく、僧侶も葬儀業者もいないという状況に陥る。もはや人手不足でまともな葬儀すらできない、そんな時代がやってくるのだ……。

今、東京は二〇二〇年のオリンピックを迎えるために活況を呈していますが、地方は静かです。人口が減り続けているからです。経済の成長は停滞し、多くの人は不安を感じています。しかし考え方を換え、生き方を変えて、例えば仏教の「少欲知足」の教え―欲望をコントロールして満足することを知ら―にしたがい、成長社会を成熟社会へと変えることができれば、落ちついた良い国になると思います。むしろ、地球温暖化により、私たちの生活全体が危機に瀕している現代にふさわしい生き方といえましょう。

日蓮聖人は『立正安国論』に

汝須く一身の安堵を思はば先ず四表の静謐を祈るべきものか。（貴殿が一身の安らかであることを願うならば、まず何をおいても世の中が穏やかになることを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述べられています。これは、私たち一人ひとりが安らかで穏やかな暮らしを送るためには、世界全体が平和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示したものです。この祈りこそが、現代における宗教の意義である、と思います。

さて、このたび、このようなすばらしい行事を企画し、私たちを招いて下さった寶土寺の禹法顕上人はじめ関係者各位に御礼申し上げます。日蓮宗の教えがこの国に根づ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このあと、諸先生方から仏教・法華経のお話をうかがいます。会場のみなさまと共に拝聴したいと存じます。先生方、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韓日佛教學術 f o r u m

主催趣旨「現代における宗教の意義」

日蓮宗現代宗教研究所長

三原正資

오늘은 한국에 와서, 불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이천년 가까이 교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육세기 전반 당시의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성명왕은 우리나라의 흠명천황에게 불상과 경전을 전하고 아스카 불교의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일련대성인은 『선시초』에 백제국에서 일체경과 교주석존의 목상 비구 비구니등이 본국에 전해졌다 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팔세기에 조성되어, 우리나라 동대사에 전해져 오는 금동제의 탄생석가불 입상의 부드러운 얼굴은 한국의 단산계곡에 남아 있는 마애불의 미소와 닮아 있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상냥함을, 우리나라에 전해준 것입니다. 백제는 일본문화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일련성인의 불교를 배우는 자가 반듯이 보는 책이 천태교학의 입문서인 천태사교의 입니다. 이것은 고려승 제관이 나타낸 것입니다. 오십년전, 첫눈에 본 표제의 밑에 적혀있던 고려사문 제관 녹의 문자는 선렬하여, 고려국의 이름과 같이 나의 마음에 세겨졌습니다.

그러면, 일련종은 일련성인에 의해서 1253년 열린 불교교단입니다. 아울러, 일련이라는 이름은 법화경에서 유래합니다. 일월의 광명이 능히 모든 유명을 없애는 것과 같이, 그 인세간에 행해서 능히 중생의 어둠을 멸함(태양이나 달의 빛이 여러가지 짙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가능 하듯이 이 사람은 세상에 활동하여 중생의(마음이)어둠을 멸한다.)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 것, 연꽃이 물에 있는 것과 같이 (훌륭히 보살의 길을 학습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이 (오염된) 물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지용출품제십오

일련성인이 불교를 여신 석가모니불의 제자로써의 자각과 결의를 나타낸 이름입니다.

자, 삼년반 전의 2011년 3월 11일, 매그니튜드 9.0이라는 천년에 한번이라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나는 동경에 있었습니다만, 그 지진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동경만에 있는 석유탱크는 불이 났고,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T.V를 보면, 쓰나미가 동북지방의 해안에 있는 마을을 한번에 집어

삼켰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합쳐서 이만명에 가깝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세계각지에서 사람들이 원조와 격려를 해주신 것은 지금까지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각국에 앞서서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감소의 시대에 들어 왔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칠천만명, 현재는 1억 2천만명 정도입니다.

어떤 잡지(주간현대 6월 21호)는 우리나라 장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조금 과장하여 대단히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구 4300만명 일본 30년후의 현실손님이 없어지고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젊은 여성이 사라진다.

(략)

거리는 황폐한 일대를 보는 것과 같이 될 것이고, 결국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을 때, 근처에는 절도 없고, 승려도 장례업자도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일손부족제대로 된 장례식마저도 안되는, 그러한 시대가 닥쳐 올 것이다

지금, 동경은 2020년의 올림픽을 맞이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은 조용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꾸어, 예를 들면, 불교(법화경의) 「소옥지족」의 가르침 - 욕망을 컨트롤해서 만족함을 아는 것- 에 따라서, 성장사회를 성숙사회로 바꾸는 것이 된다면, 진정한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우리들 생활전반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대에 맞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련성인은 『입정안국론에』

그대 빨리 일신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우선사표의 정밀을 기원할 것이니라. (당신이 일신의 안녕을 원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세상이 편안해질 것을 기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한명 한명이 편안하고 안온한 생활을 원한다면 세계 전반이 평화롭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원 이야말로 현대에 있어서 종교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훌륭한 행사를 기획하고, 우리들을 초청해주신 보토사의 우 법현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각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련종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후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불교, 법화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석한 여러분들과 같이 배청하려고 생각합니다.

각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